

2020. 09. 14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한국경제</b> <a href="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345071">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345071</a>	
<b>( 요약 ) 濠 태양광발전소 투자한 하나금투, 현지서 1,700억원 규모 PF도 조달</b> - 국내 증권사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실무, PF까지 조달 첫 사례로 올 4분기 사업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양수도 - 운영이 시작된지 2년 뒤부터 한국 전력 공기업이 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계획	
<p>하나금융투자가 호주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1700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했다.</p> <p><b>국내 증권사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실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PF까지 현지에서 조달한 첫 번째 사례다. 하나금투는 올 4분기 해당 사업 지분을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양수도(셀다운)할 예정</b>이다.</p>	
<p>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 콜럼볼라에서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1700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 PF 조달을 마쳤다. 지난 10일 ANZ 은행, 소시에테제네랄, DBS 은행 등 선순위 대출에 투자한 현지 대주단과 계약을 마쳤다. 대출 금리는 연 2% 중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p>	
<p>이 사업은 콜럼볼라 일대에 162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비 28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6월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1년 12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약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p>	
<p>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향후 10년간 퀸즐랜드 주정부 산하 발전회사인 CS에너지에 판매된다. <b>운영이 시작된 지 2년 뒤부터는 한국의 전력 공기업이 발전소의 운영관리 업무를 맡을 계획</b>이다.</p>	
<p>하나금투는 선순위 대출로 조달한 1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억원의 사업비는 중순위 대출과 지분 양수도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지분 투자 상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4분기에 국내 기관투자자와 전력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수도 작업에 나선다.</p>	
<p>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사업비 조달까지 끝마친 첫 번째 사례다. 하나금투는 개발 인허가와 토지계약 단계까지 진행돼 있던 사업을 올해 초 인수한 뒤 시공사 선정, 인허가 변경 취득, 전력 판매계약 체결, 운전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발전소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직접 이끌었다.</p>	

#### 호주 퀸즐랜드주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

총 사업비	2800억원
선순위 대출금	1700억원
중순위 대출 및 지분 투자	1100억원
사업 내용	162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
운영 기간	2022~2057년 (35년)

자료: 금융투자업계

2020. 09. 14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매일경제</b> <a href="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45222/">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45222/</a>	
<b>( 요약 ) 쿠팡 물류센터 관리도 구멍</b> - 쿠팡 물류센터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비주의에 또 다른 양상 - 쿠팡은 확진자 발생 당일 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확진자 관련 사항을 일절 공개 거부.	
<p>코로나 19 사태로 <b>쿠팡 물류센터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의 '신비주의'는 '소통 문제'로 또 다른 양상</b>을 드러냈다.</p>	
<p>지난 5월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6명에 달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이 폐쇄됐다.</p>	
	
<p>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바이러스 특징을 고려하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만으로 쿠팡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쿠팡의 대응은 타 유통업체의 확진자 발생 관련 대응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 논란이 됐다. <b>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당일 어떠한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물류센터 규모나 근무자 수, 해당 확진자의 물류센터 내 동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b> 특히 같은 시기 확진자가 발생한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마켓컬리'의 대응과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마켓컬리는 지난 5월 28일 김슬아 대표 명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확진자 발생과 방역 상황을 공유했다.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으로 주문한 식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느낀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쿠팡 측은 같은 시간까지 어떠한 안내문도 발송하지 않았다.</p>	
<p>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부천물류센터의 경우 쿠팡으로의 통보 등도 지연되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전 사업장에 최고 수준의 방역, 직원보호, 확산방지, 일용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방역당국이 방역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p>	

2020. 09. 15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이투스

[기사링크](#)

## ( 요약 )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 최초로 2GW 넘어

-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 상반기 최초 2GW 돌파... 이 추세 지속되면 올해 태양광 설치량 역대 최대 전망
- 국산 모듈 점유율은 70% 내외지만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국산 모듈 점유율은 하락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이 처음으로 2GW를 넘었다. 다만 지난해보다 늘어난 중국산모듈 점유율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태양광모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서울 제이케이비즈센터에서 가졌다. 간담회는 탄소인증제, RE100 등 태양광산업 관련 주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점검하고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냉철히 진단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상반기 최초 2GW를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실적도 개선돼 국산 모듈설치량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증가한 1.4GW를 달성했다. 매출액은 3조5919억원으로 1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726억원으로 88.4% 급증했다.**

이런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거대 내수시장을 토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태양광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국내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국산 모듈 점유율이 작년 대비 12.4% 하락한 67.4%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수수요 감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태양광업계는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삭감,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태양광모듈 초과공급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 또 국내 REC 가격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태양광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안정적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우리나라가 주요 태양광 보급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산 모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국산 모듈점유율은 70% 내외로 우리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설치순위별 자국산 모듈 공급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태양광

을 설치한 중국은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국은 6% 일본은 17.6%로 상대적으로 자국산 모듈 설치비율이 낮았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유럽 시장을 공략해 올해 상반기 모듈 수입액인 1억7200만달러의 33배에 달하는 5억7300만달러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태양광모듈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흑자국이라는 의미다.

반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등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공단은 이에 대해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고효율친환경 시장으로 전환하고,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속적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RE100, 그린뉴딜 등 정부가 추진중인 신규시장 확보 계획에 맞춰 기업 투자확대 등 규모의 경제 확보전략 병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국산모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조산업 현안을 분석하는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업계와 전문가가 모여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 09. 15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한국경제

[기사링크](#)

( 요약 ) "오늘부터 반도체 어디서도 못 산다"...존페 기로 선 화웨이

-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길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 단행...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변곡점 예상
- 화웨이는 제재 발효 전에 최대한 재고 축적해 버틴다는 계획...3개월~최대 2년치 부품 비축했다는 다양한 분석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반도체 제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반도체의 공급 길을 원천 차단해 화웨이를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세계 할 만큼 초강력 제재인만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SW), 설계 등을 사용해 생산하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는 그간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기조를 볼 때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이 워낙 뚜렷한 상황이라 반도체 판매 관련 미국의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화웨이로의 수출 길을 막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화웨이로선 당장 발등에 불이다.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해 이동통신 기지국, 서버,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T인터내셔널증권은 "최악의 경우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웨이는 제재 발효 전까지 최대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 최근 협력 업체들을 통해 주문량을 급격히 늘렸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최대한 비축한 재고 부품으로 버틴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닷케이아시아리뷰는 "화웨이가 미국 제재 전까지 5세대(5G) 통신 스마트폰 칩, 와이파이 칩, 이미지 구동 칩 등을 적극적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했고, 자유시보는 "화웨이는 회당 약 2억8300만원을 지불하면서 전용 화물기를 띄우며 TSMC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비축해놓은 반도체 부품의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약 3개월~반 년 후인 내년 초부터는 화웨이의 비축 부품이 동날 것이라는 관측과 최대 2년 치의 핵심 반도체 부품을 비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비축량과 무관하게 세계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화웨이의 추락은 불가피해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앞으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는 건 앞으로 화웨이 제품의 시장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내년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으로 폭락할 것으로 봤다. 올해 15.1%로 예상되는 화웨이의 점유율이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이 떨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에 따라 그간 화웨이를 고객사로 둔 TSMC, 미디어텍, 소니 등 대만과 일본 반도체 부품 공급 업체 뿐 아니라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을 수출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불뚝이 튀게 됐다. 화웨이에 대한 수출과 현지공장 공급 길이 막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상무부에 판매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사의 매출 중 화웨이 비중은 각각 3%와 11%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질 경우 연간 10조원 가량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량이 약 112조939억3000만달러임을 고려할 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맞춤 제품이 아닌 표준형 범용 제품에 속하는 만큼 대체 고객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이 메우게 된다면, 이들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가 다시금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화웨이의 입지 축소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외 타 분야에서의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매출 중 10% 이상을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시장 등 반도체 외의 분야에서 화웨이의 부진에 따른 점유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내심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고강도 제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유화책을 펼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바이든의 대중관이 바뀌었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제재를 시직한 이유가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5G 인프라 구축을 화웨이가 주도하는 중국에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내수위주의 자립경제를 의미하는 '쌍순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화웨이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이날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을 내수시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이 강경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국가 역량을 남용해 해외 기업을 아무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중국 기업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09. 16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9368>

( 요약 ) SK가스, 충전소 100곳에 '수소 인프라'

- SK가스는 최근 수소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소 사업을 진출, SK가 운영하는 LPG 충전소를 복합적으로 운영
- 코로나 여파로 적자로 시달리는 에너지 업계에 정부 지원과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린 뉴딜’ 확산에 수소 시장 넘보는 에너지 기업	
기업	내용
SK가스	SK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일부를 수소 충전소로 전환, 부생 수소 유통 사업 검토 중
SK에너지	경기 평택에 수소 충전소 구축 중   국토교통부 주축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참여 발표
현대오일뱅크	8일 투자자 대상으로 수소 충전소 시장 진출 계획 발표
에스오일	서울 마곡연구소 부지에 복합 수소 충전소 도입 검토 중
GS칼텍스	수소 충전소 사업 적극 검토 계획

SK 가스가 SK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약 100 곳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 그룹 계열사의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판매에까지 나서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국내의 수소 생태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SK 가스는 최근 수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수소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SK가 운영하는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와 복합 운영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계획**이다. 앞서 SK 가스는 수소 충전소의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인천 남동구의 LPG 충전소에 임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해왔다.

SK 가스는 수소 충전소를 빠르게 늘려야 에너지 보급 생태계가 바뀐다고 보고 100개 이상의 충전소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수소 충전소를 2022년 310기, 2030년엔 660기 이상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또 SK 가스는 수소 충전소 운영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SK 어드밴스드, SK 디앤디 등과 함께 수소 생산 및 유통, 나아가 수소연료전지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SK 어드밴스드는 프로필렌을 만드는 공정에서 연간 3만 t가량의 부생 수소가 나온다. 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만들어져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부생 수소를 가공해 수소 충전소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겠다는 것이다.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을 비롯한 에너지 업계는 그간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부생 수소를 연료 등으로 자체 소비해 왔지만 이번 정부의 그린 뉴딜 수소경제 지원 정책으로 부생 수소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달 8일에는 현대오일뱅크도 투자자 대상 콘퍼런스 콜에서 수소 충전소 사업 진출 로드맵을 밝혔다.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오는 연간 30만 t 규모의 부생 수소를 수소 충전소에서 유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존의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해 2025년까지 80개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S칼텍스와 에스오일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수소 충전소 시설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가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적자에 시달리는 에너지 업계에 정부 지원과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수소 업계 관계자는 “수소 충전소 1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50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전소를 100개 이상 지어 운영하려면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SK 그룹이 최근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 인프라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에너지 산업이 융합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미 수소차를 만들고 상용화한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수소 생산과 수소 충전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업스트림 인프라”라며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은 수소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 09. 16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25900448&mediaCodeNo=257&OutLnkCh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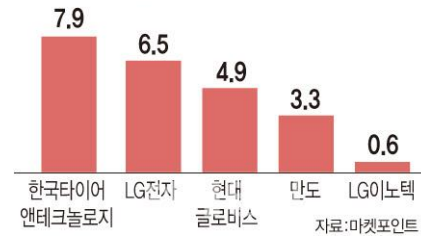
## ( 요약 ) 배터리 다음은 저탄소?...탄소효율 그린뉴딜' 후보군 '꿈틀'

-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연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기업들이 뉴딜지수에 포함가능성
- 앞으로 환경도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경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여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인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에 포함될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BIG K-뉴딜 지수 발표 후 편입 종목이 크게 상승한 바가 있는 만큼, 그린뉴딜 지수 포함 종목도 미리 예측해 수익을 내겠다 단 전략인 셈이다.

### 저탄소 관련주 주가 상승률 추이

단위:%, 기간: 9월 3~14일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거래소가 10월 중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LG전자\(066570\)](#)는 65% 상승했다. [한온시스템\(018880\)](#)(-4.2%), [현대글로비스\(086280\)](#)(+4.9%), [LG이노텍\(011070\)](#)(+0.6%),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7.9%), [CJ대한통운\(000120\)](#)(-0.6%), [일진머티리얼즈\(020150\)](#)(-0.8%), [만도\(204320\)](#)(3.3%) 등도 대부분 올랐다.

해당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포함된 300여개 상장사 중 일부**이기도 하다. 환경부 자료를 기초로 이른바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의 후보군이 추려지는 셈이다.

그린뉴딜 지수 후보 종목들은 향후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표된 KRX BBIG K-뉴딜지수에 편입된 종목인 [더존비즈온\(012510\)](#)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1.8% 상승한 만큼 뉴딜지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거래소가 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테마 종목들에 비해 저탄소 기업의 경우 아직까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태양광 에너지의 대표 종목인 [한화솔루션\(009830\)](#), 풍력 에너지의 [씨에스원드\(112610\)](#)는 전략회의 이후 이날까지 각각 13%, 16.3% 올랐다.

그린뉴딜 지수 포함 가능성이 있는 상위 후보군을 제시한 안현국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의 탄소효율 지수의 핵심은 매출단위 당 탄소배출량"이라며 "아직 상세한 종목 선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즉 매출 증가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대형주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때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김민규 KB 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환경도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경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등으로, 아직까지 탄소배출량이 많고 많아지는 기업을 그린뉴딜 테마 투자 종목으로 꼽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기업으로는 [LG화학\(051910\)](#)과 [POSCO\(005490\)](#) 등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기술주 하락을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장을 맞은 것을 고려할 때도 친환경 테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단 관점도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과 가치의 우위 논의가 무의미한 상태"라며 "정부의 뉴딜정책 발표로 스타일보다는 정책 테마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뉴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2020. 09. 17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 처 ) 한국경제

[기사링크](#)

( 요 약 ) 태양광 시장 판도 바꿀 '꿈의 소재' 아세요?

- 페로브스카이트, 광전효율 25.2%로 태양 전지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폴리실리콘 최대효율(26.1%) 거의 따라잡아
- 저렴한 제조비용과 필름처럼 휘어져 활용성 높아...한국, 페로브스카이트 강국으로 상용화 시점은 2~3년 뒤



**페로브스카이트**(사진). 요즘 태양광업계가 주목하는 물질이다. 광전 효율이 작년 기준으로 25.2%까지 나온다. 현재 태양 전지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폴리실리콘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폴리실리콘 전지의 효율은 26.1%가 최대다. 폴리실리콘이 60년간 꾸준히 개선해온 효율을 페로브스카이트가 10년 만에 따라잡은 상황이다.

한국은 페로브스카이트 강국으로 꼽힌다.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이 2012년 9.7% 효율을 내는 태양 전지를 제시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열었다. 박 교수는 이 연구 덕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기업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유니테스트는 작년 11월 상용화가 가능한 넓은 크기의 제품을 개발했다. 한화솔루션 신성이엔지 등도 국책 과제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연구 중이다.

**이 물질의 강점은 저렴한 제조 비용이다.** 폴리실리콘은 1000도 넘는 전기로에서 녹여 웨이퍼를 뽑아낸 뒤 전지로 제조한다. 전기 비용이 원가의 50%에 달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200도 안팎이면 성형이 가능해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필름처럼 휘어진다는 것도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징 중 하나다. 자동차 지붕과 건물 외벽은 물론 창문에 붙일 수도 있다.

기존 태양 전지판에 한 겹 덧붙여서 쓸 수도 있다. '탠덤 전지'라고 한다. 흡수하는 빛 파장대가 폴리실리콘과 달라 가능하다. 탠덤 전지는 효율이 29.1%까지 나온다. **기존 태양 전지 성능을 단숨에 50%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용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전지의 수명과 크기다.** 재료 중 인체에 해로운 납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다. 주석, 나트륨 등으로 납을 대체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상용화 시점을 이르면 2~3년 뒤로 본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설립한 스타트업 옥스퍼드PV는 올 연말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국 GCL도 시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가동에 들어갔다.

2020. 09. 17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 처 ) 한국경제

[기사링크](#)

( 요 약 ) LG, 배터리 전격 분사 '승부수'...'글로벌 1위' 지킬 실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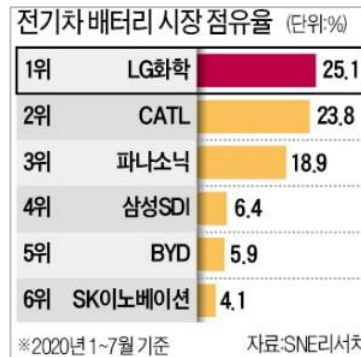
-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분리시켜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하기로...예상 기업가치 50조원 안팎
- 배터리 사업 분사의 의미는 1. 공장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 2 기업가치 제고 3. 배터리업계 1위 독자 브랜딩



**LG화학이 2차전지(배터리)사업부를 떼내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을하기로 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전지사업부 분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초로 예정됐다. **LG화학은 분사 뒤 회사를 상장시켜 자금을 확보한 다음 대대적인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LG화학이 연내 배터리사업을 분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회사 측도 분사를 2~3년 전부터 검토해왔지만 배터리사업의 대규모 적자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분사 후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기업 신용도만 떨어질 것이라는 경영진의 우려와 노조 반대로 변수였다.



하지만 올 2분기 배터리에서만 155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LG그룹 경영진도 테슬라 BMW 벤츠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주문이 밀려들자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차동석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수출 정상화와 고정부 절감이 이뤄지면서 구조적 이익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분사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선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의 기업 가치가 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배터리 경쟁사인 중국 CATL,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 같은 주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

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가 이뤄져 LG화학 주주들도 배터리사업부문의 가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LG화학, 12월 물적분할 통해 100% 자회사로 대규모 투자로 가격경쟁력 확보...시장 지배력 높이기 나서**

LG화학은 지난 3월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CATL을

처음으로 제쳤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3', 르노 '조에' 등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었다. 이후 7월까지 내리 다섯 달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배터리 사업이 올 2분기 155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작년 3분기 일시적으로 이익을 낸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흑자였다. 이후 배터리 분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배터리 사업만 따로 떼어 내 대대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배터리 사업 분사를 승인하기로 했다.



#### 상장 시 10조원 투자금 조달 가능

**배터리 사업 분사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대규모 자금 조달**

**을 할 수 있다.** LG화학은 배터리 생산 설비를 2018년 말 35GWh에서 올해 말 100GWh로 세 배 가까이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말에는 120GWh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

**서 공장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규모가 큰 폴란드 공장은 증설을 지속해 60GWh까지 늘릴 예정이고, 미국 GM과 합작한 회사도 2023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중국에서도 추가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만 연간 5조원이 넘는다.

지금까지는 이 자금을 LG화학 내 다른 사업부에서 담당했다. 특히 캐시카우인 석유화학사업의 기여도가 컸다. 하지만 투자금이 점점 늘어 석유화학에서 나온 이익만으론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졌다. LG화학의 해법은 기업공개(IPO)였다. 100% 자회사로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고, 상장 시 신주를 발행한다면 10조원 이상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시장에선 LG화학 배터리 사업 가치를 50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기업가치를 더 키운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LG화학은 석유화학, 배터리, 생명과학 등 다양한 사업부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 때문에 '유망사업인 배터리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배터리를 떼어내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란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이 사실상 유럽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독자 브랜딩을 하려는 의도도 있다.**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른 만큼 '화학'을 떼면 별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LG화학은 석유기업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 배터리 시장을 위한 별도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로벌 배터리사 대규모 증설 경쟁

LG화학의 배터리 분사는 세계 배터리 시장이 대대적인 자본력 싸움과 증설 경쟁으로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기차 업체들이 원가의 40%에 이르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연구개발(R&D) 확대가 필수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헝가리 미국 등 해외에서 배터리 공장을 연달아 짓고 있다. 작년 말 기준 19.7GWh인 설비 규모를 2023년까지 71GWh로 확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주 잔량이 500GWh에 이를 정도로 일감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 현대기아차 페라리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만에 회사채 발행도 추진 중이다. 총 4000억원 규모다.

삼성SDI는 2018년 약 2조원, 작년 약 1조7000억원을 증설에 투자했다. 매출의 20%에 이른다. 올 상반기 매출의 83%가량인 4092억원을 R&D에 투입했다. 배터리 생산능력을 현재 약 20GWh에서 2025년 100GWh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CATL도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60GWh인 생산 규모를 2023년 150GWh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20억달러(약 2조37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2020. 09. 18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1678571>

( 요약 ) SK E&S, 민간 최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따냈다

- 국내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로는 최대 규모, 2조원 추가 투자해 혁신도시로 육성
- SK E&S는 11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운영 중이나 30년까지 10GW로 확대 예정

SK 그룹의 에너지 자회사인 SK E&S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0MW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다. **국내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로는 최대 규모다. SK E&S는 2조원을 투자해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예상도)를 구축하고, 새만금을 국내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2조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S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벤처기업 및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200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주는 모델이다. 200MW는 정부가 새만금에 계획한 24GW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 용량의 8%에 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해 총 4개 사업자를 1차로 선발했다. 이어 지난 15일 본입찰을 진행했고, SK E&S와 SK 브로드밴드가 참여한 SK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기업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투자다.

SK 컨소시엄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등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안했다. 우선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서 약 3만 3000㎡ 규모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기간인 20년간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1단계로 2024년까지 건물 4개 동을 완공하고 2단계로 2029년까지 12개 동을 추가로 조성한다.

**SK E&S는 새만금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허브도 짓기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비즈니스다.** SK E&S 관계자는 "첨단 분야의 벤처를 발굴육성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을 다수 탄생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권 획득으로 SK E&S는 국내 굴지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SK E&S는 현재 국내에서 110M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총 10G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SK 컨소시엄의 투자로 300여 개 기업 유치와 2만여 명의 누적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준 SK E&S 사장은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솔루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 09. 18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677941>

( 요약 ) **주식 쏠개는 '신재생에너지 대장株...넥스트에라에너지, 실적 전망도 好好**

-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넥스트에라에너지가 주식분할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 사업이 급성장하다는 이유로 반증
- 저비용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중에 있고, 투자기회나 활용여지도 늘어나는 중

북미(미국캐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장주인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가 주식분할을 단행한다.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1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넥스트에라에너지는 489% 오른 295.70달러에 마감했다. 주식 1주를 4주로 분할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식분할은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매수세 유입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분할된 주식은 다음달 27일부터 거래 가능하다.

이날 발표에서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었다. 회사 측은 내년 주당순이익(EPS) 전망을 종전보다 02달러 높여 9.60~10.1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분할된 주식 기준으로는 240~254달러 수준이다. 이는 올해 EPS 추정치 218~230달러(분할주식 기준)보다 높은 성장세다.

짐 로보 넥스트에라에너지 최고경영자(CEO)는 **“저비용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EPS는 내년보다 6~8%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투자은행(B) 웰스파고는 넥스트에라에너지의 목표주가를 68달러에서 73달러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넥스트에라에너지 소식에 뉴욕증시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틸리티 상장지수펀드(ETF)도 급등했다. SPDR 유틸리티 ETF(XLU)는 0.67% 올랐다. 뱅가드 유틸리티 ETF(VPU)도 0.69% 상승했다.

넥스트에라에너지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테마주로 거론되기도 한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그가 당선되면 태양광·풍력·발전·전기차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